

회차	일제강점기의 한국사 (무장독립투쟁)	
74	[지역] 사탕수수 노동 이민자	하와이
74	[지역] 한인 자치 기구인 경학사를 설립하였다.	서간도
74	[지역] 권업신문을 발간하여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	연해주
74	[지역]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을 발표하였다.	일본 도쿄
74	[지역] 신한 청년당이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중국 상해
74	[지역]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고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하와이 (박용만)
74	[연도] 경성 제국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1924년
74	[연도]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참여하는 천도교 소년회 회원	1922년
74	탑골공원 / 종로 / 독립 만세 제창	3.1 운동
74	정우회 선언의 영향을 받았다.	신간회
74	통감부의 탄압과 방해로 중단되었다.	국채보상운동
74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	6.10 만세 운동
74	전개 과정에서 일제가 제암리 학살 등을 자행하였다.	3.1 운동
74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74	백산 상회 / 연통제 / 독립신문 보급	대한민국 임시정부
74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자강회
74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보안회
74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독립협회
74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74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였다.	독립의군부
74	김원봉이 조직한 단체 / 부산 경찰서 폭탄	의열단
74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하였다.	신간회
74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신민회
74	김익상, 김상옥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의열단
74	상덕태상회를 통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국권회복단
74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 의거를 계획하였다.	한인애국단
74	조선사회경제사' 저술 / 식민 사학의 정체성론 반박	백남운
74	조선불교유신론을 주장하였다.	한용운
74	조선사편수회에 들어가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였다.	친일세력
74	진단 학회를 설립하여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	이병도
74	민족을 역사 서술의 중심에 둔 독사신문을 집필하였다.	신채호
74	[지역]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일어나다	만주
74	[지역] 관동 대지진 당시 자경단에게 학살당하다	일본
74	[지역] 에네켄 농장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멕시코
74	[지역] 소련 당국에 의해 강제로 이주되어 오다	중앙아시아
74	[지역] 교민들을 중심으로 흥사단이 창립되다	미국
74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대한독립군
74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한국광복군
74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조선혁명군
74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의 군사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조선의용대
74	한국 독립당의 군사 조직으로 북만주 지역에서 활약하였다.	한국독립군
74	총사령관 지청천 / 대전자령 전투	한국독립군
74	조선 태형령이 반포되었다.	무단통치
74	[연도] 조선 노동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1924년
74	임시 토지 조사국이 설립되었다.	무단통치

회차	일제강점기의 한국사 (무장독립투쟁)	
74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	민족말살 통치
74	[연도]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1923년
73	[연도]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1910년
73	조선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하였다.	물산장려운동 (1920)
73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요구하였다.	형평운동 (1923)
73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에서 모금 활동을 주도하였다.	조선 민립대학 설립운동
73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원산총파업 (1929)
73	[지역] 경학사 / 신흥강습소	서간도
73	[지역]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일본
73	[지역]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여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미주
73	[지역] 대한 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여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다.	연해주
73	[지역] 독립군 비행사 양성을 위해 한인 비행 학교를 설립하였다.	미주
73	[시대] 헌병 경찰 / 태형 / 제복	1910년대 무단통치
73	[연도] 국가 총동원법	1938년
73	[시대] 산미 증식 계획 시행	1920~30년대
73	[시대] 토지 조사 사업	1910년대 무단통치
73	[연도]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	1937년
73	[연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제정	1943년
73	[시대] 농촌 진흥 운동 / 남면북양 정책	1930년대
73	[연도] 근우회 창립총회에 참여하는 학생	1927년
73	경성 제국 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관리	1924년
73	혁명적 농민 조합을 결성하여 일제에 저항하는 농민	1930년대
73	광주 한일 학생 간 충돌 사건 / 신간회 진상 조사단 파견	광주학생항일운동
73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일어났다.	6.10 만세 운동
73	조선어 학회가 해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선어 학회 사건
73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6.10 만세 운동
73	전국적인 시위와 동맹 휴학을 확산하였다.	광주학생항일운동
73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
73	김구가 일제의 요인 제거 및 주요 기관 파괴 목적으로 상하이에서 조직한 단체	한인 애국단
73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신민회
73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73	단원인 윤봉길이 홍커우 공원 의거를 실행하였다.	한인 애국단
73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
73	군사 훈련을 위해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	의열단
73	1938년에 우한에서 설립된 단체 / 김원봉 대장	조선의용대
73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동북 인민 혁명군
73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독립군
73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한국독립군
73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의 군사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조선의용대
73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북로군정서
73	조선 사람 조선 것' / 조선 관세령 폐지 등을 배경으로 확산되었다.	물산장려운동
73	일본 제일은행권 화폐가 유통되는 계기가 되었다.	화폐정리사업
73	[연도]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가 결성되었다.	1912년
73	만주 군벌과 일제가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1925년
73	여자 정신 근로령으로 여성들이 강제 동원되었다.	1940년

회차	일제강점기의 한국사 (무장독립투쟁)	
73	상하이에서 주권 재민을 천명한 대동단결 선언이 발표되었다.	1917년
73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고자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1923년
72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대한독립군
72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	6.10 만세운동 (1926)
72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3.1운동 (1919)
72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광주학생 항일 운동 (1929)
72	청산리 전투 / 김좌진, 이범석 주도	북로군정서
72	영릉가에서 일본군에 승리를 거두었다.	조선혁명군
72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한국광복군
72	중국 팔로군과 함께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조선의용대
72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중국항일단체
72	중광단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항일 독립 전쟁에 참여하였다.	북로군정서
72	[지역] 신한촌 등 한인 집단 거주지 /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함	연해주
72	별 헤는 밤, 참회록 등의 시를 남겼다.	운동주
72	국문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시경
72	근대극 형식을 도입한 토월회를 조직하였다.	김기진
72	실천적인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구신론을 저술하였다.	박은식
72	브나로드 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하였다.	심훈
72	[시대] 중일 전쟁 이후 국가 총동원법 시행	민족말살통치
72	[연도] 경성 제국 대학 설립	1924년
72	[시대] 헌병 경찰에게 끌려가 태형을 당하는 농민	무단통치
72	[연도] 원산 총파업에 연대 지원금을 보내는 외국 노동자	1929년
72	[연도]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을 환영하기 위해 상경하는 청년	1922년
72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신간회
71	서당 규칙을 제정하였다.	무단통치 (1918)
71	[지역] 권업회를 조직하고 신문을 발행하였다.	연해주
71	[지역] 한인 자치 기구인 경학사를 설립하였다.	서간도 (남만주)
71	[지역] 유학생을 중심으로 2 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일본 도쿄
71	[지역] 독립군 양성을 위해 대조선 국민 군단을 결성하였다.	미주
71	[지역] 서전서숙과 명동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북간도
71	[지역]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지역	연해주
71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이재명
71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안중근
71	타이중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하였다.	조명하
71	샌프란시스코에서 D.W.스티븐스를 처단하였다.	장인환 / 전명운
71	서울역에서 신임 총독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강우규
71	동양 평화론 집필	안중근
71	애국반이 편성되어 일상생활이 통제되었다.	민족말살통치
71	[연도] 조선 형평사가 창립되어 형평 운동을 전개하였다.	1923년
71	[연도] 나운규가 제작한 아리랑이 단성사에서 개봉되었다.	1926년
71	경복궁에서 조선 물산 공진회가 최초로 개최되었다.	무단통치 (1915)
71	[연도] 조선 물산 장려회가 평양에서 창립되었다.	1923년
71	[연도]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였다.	1938년
71	[연도] 민립대학설립운동	1922~23년
71	[연도]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다.	1931년

회차	일제강점기의 한국사 (무장독립투쟁)	
71	[연도] 전국 단위의 조직인 조선 노동 총동맹이 조직되었다.	1924년
71	[연도] 고을의 소작료에 반발하여 암태도 소작 쟁의가 발생하였다.	1923년
71	라이징 선 석유 회사의 한국인 구타 사건 / 여러 노동 단체의 격려와 후원	원산 총파업 (1929)
71	전시 통제 체제 속에서 강요된 여성복, 몸빼	민족말살통치 (1940년대)
71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대한독립군단
71	영릉가에서 일본군에 승리를 거두었다.	조선혁명군
71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대한독립군
71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한국광복군
71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독립군
71	총사령관 지청천 /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70	[지역] 신흥무관학교	서간도
70	[지역] 한인 자치 기구인 경학사가 설립되었다.	서간도
70	[지역] 권업회가 조직되어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연해주
70	[지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일본 도쿄
70	[지역] 대조선 국민 군단이 결성되어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하와이
70	[지역] 흥사단이 창립되어 교민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안창호)
70	고종 인산일을 계기로 시작된 만세 운동 / 독립 선언서 발표	3.1 운동
70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국채보상운동 (1907)
70	천도교 소년회가 창립된 후 본격화되었다.	어린이날 (1922)
70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3.1 운동
70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광주학생항일운동 (1929)
70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6.10 만세운동 (1926)
70	토지 조사 사업 / 조선 태형령	무단 통치
70	[연도] 신문지법 제정	1907년
70	애국반 조직 /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강요	민족말살통치
70	[연도] 산미 증식 계획 실시	1920년
70	나철이 만주에서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창시한 종교	대종교
70	[종교]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하였다.	천도교
70	[종교] 한용운 등이 사찰령 폐지를 주장하였다.	불교
70	[종교] 박종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펼쳤다.	원불교
70	[종교] 김창숙의 주도로 파리 장서 운동을 전개하였다.	유학
70	[종교] 무장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중광단을 조직하였다.	대종교
70	[연도] 간도 참변 : 일본군이 독립군 보복으로 간도 지역 한인을 학살	1920년
70	[연도] 자유시 참변 : 독립군 통합과정 내 지휘권 분쟁	1921년
70	[연도] 미쓰야 협정 :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 색출 목적으로 조선 총독부가 체결한 협정	1925년
70	[연도] 은세계 공연 (@원각사)	1908년
70	[연도] 전차 개통	1899년
70	[시대] 카프(KAPF)를 형성하여 활동하는 신경향파 작가	1920년대
70	[시대]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	민족말살통치
70	[연도] 회사령 공포	1910년
70	[연도] 치안유지법 제정	1925년
70	[시대] 헌병 경찰제 실시	무단통치 (1910년대)
70	[연도] 경성 제국 대학 설립	1924년
70	[연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시행	1941년
70	[인물] 한국 독립당 창당 / 대동단결 선언	조소앙

회차	일제강점기의 한국사 (무장독립투쟁)	
70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신채호
70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박은식
70	극동 인민 대표 대회에서 의장단으로 선출되었다.	김규식, 여운형
70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이준, 이위종, 이상설
70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이념으로 삼균주의를 주장하였다.	조소앙
69	박재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린 지역	부산
69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지역	평양
69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
69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하였다.	형평운동
69	대한매일신보 등의 지원을 받아 확산되었다.	국채보상운동
69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에서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민립대학 설립 운동
69	회사령 폐지가 주요 배경 /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	물산장려 운동
69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
69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69	잡지 개벽 등을 발행하여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	천도교
69	홍커우 공원에서 일어난 윤봉길 의거를 계획하였다.	한인 애국단
69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였다.	독립 의군부
69	[연도] 신간회	1927년
69	[연도]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929년
69	[연도] 6.10 만세 운동	1926년
69	국가 총동원법 / 황국 신민 서사 암송	민족 말살 정책
69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 경찰	무단 통치
69	원산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문화 통치 (1929년)
69	경성제국 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관리	문화 통치 (1924년)
69	[연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공포되었다.	1941년
69	조선사회경제사 저술 / 식민 사학의 정체성론 반박	백남운
69	진단 학회를 조직하였다.	이병도
69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박은식
69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조선어학회 (이윤재)
69	민족의 얼을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	정인보
69	지청천 총사령관 / 조선 의용대를 개편하여 편입된 부대	한국광복군
69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대한독립군단
69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조선혁명군
69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독립군
69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한국광복군
69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북로 군정서군
69	[연도]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체결되었다.	1905년
68	치안 유지법	1920년대
68	조선 태형령	1910년대
68	제 1차 조선 교육령	1910년대
68	경성 제국 대학 설립	1920년대
68	국가 총동원법	민족말살정책
68	고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일으킨 시위/운동	3.1운동
68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줌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	3.1운동
68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 대회 열림 / 평화적 만세 운동에서 무력 투쟁 사례 증가	3.1운동

회차	일제강점기의 한국사 (무장독립투쟁)	
68	안창호와 양기탁 등이 중심으로 조직된 비밀 결사 / 태극 서관 설립	신민회
68	복벽주의 표방	독립의군부
68	13도 창의군을 결성	정미의병
68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	보안회
68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신민회
68	[회의] "2천만 민중의 공의를 지키는 국민적 대회합.."	국민대표회의 (1923)
68	[연도] 대일 선전 성명서를 공포하였다.	1941년
68	[연도]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1941년
68	[연도]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	1919년
68	[연도] 지청천을 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조직하였다.	1940년
68	수리 조합비 부담 증가 / 만주에서 들어온 잡곡 / 국내에 쌀 없음	산미증식계획 (1920~1934)
68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	화폐정리사업 (1905)
68	토지 조사 사업이 시행되는 배경	토지조사령 (1912)
68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	산미증식계획 (1920~1934)
68	김좌진이 지휘한 군부대	북로군정서
68	대전자령에서 일본군을 기습하였다.	한국독립군
68	영릉가에서 일본군에 승리를 거두었다.	조선혁명군
68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동북인민혁명군
68	중광단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항일 독립 전쟁에 참여하였다.	북로군정서
68	인도/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어 영국군과 연합 작전을 펼쳤다.	한국광복군
68	백정들의 신분제 폐지 / 평등한 대우 요구 / 조선 형평사 주도	형평운동
68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아 확대되었다.	국채보상운동
68	평양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	물산장려운동
68	순종의 인산일을 기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였다.	6.10만세운동
68	라이징 선 석유 회사의 한국인 구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원산총파업 (1929)
68	[인물]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신채호
67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보안회
67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신민회
67	단원인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	의열단
67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독립의군부
67	이룡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와 연락을 취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67	1929년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시작된 운동 / 광주 지역	광주학생 항일운동
67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속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국채보상운동
67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67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3.1운동
67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 확립 등을 요구하였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67	대전자령 전투에 참여한 한중 연합군	한국독립군 (지청천)
67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한국광복군
67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대한독립군단
67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조선의용대
67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북로군정서
67	한국 독립당의 군사 조직으로 북만주 지역에서 활약하였다.	한국독립군
67	창씨개명 / 국민 징용령 / 국가 총동원법	민족말살 (30~40년대)
67	조선 태형령이 공포되었다.	무단 통치 (1910년대)
67	헌병 경찰 제도가 실시되었다.	무단 통치 (1910년대)

회차	일제강점기의 한국사 (무장독립투쟁)	
67	[연도]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1924년
67	[연도] 조선 농민 총동맹이 조직되었다.	1927년
67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	민족말살 (30~40년대)
67	동학을 계승한 종교 / 방정환의 어린이 잡지	천도교
67	한용운 등이 사찰령 폐지를 주장하였다.	불교
67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앞장섰다.	천도교
67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펼쳤다.	원불교
67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을 보급하고자 힘썼다.	개신교
67	의민단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천주교
67	[인물] 민족의 얼을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인보
67	[지역] 한인 자치 기구인 경학사를 설립하였다.	서간도
67	[지역] 민족 교육을 위해 서전서숙을 건립하였다.	북간도
67	[지역]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일본 도쿄
67	[지역] 대조선 국민 군단을 결성하여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미국 하와이
67	[지역] 대한 광복군 정부를 세워 무장 독립 투쟁을 준비하였다.	연해주
67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한 인물	여운형
67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박은식
67	권업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최재형
67	대한 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박상진
67	백산 상회를 설립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안희제
67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여운형
66	[궁궐] 조선 물산 공진회 개최 장소로 이용되었다.	경복궁
66	[궁궐] 일제에 의해 동물원 등이 설치	창경궁
66	[역사서] '역사란 무엇인가?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신채호 '조선상고사'
66	한국통사를 저술하였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박은식
66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 활동하였으며, 폭력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였다.	신채호
66	지청천을 총사령, 남대관을 부사령으로 하는 항일무장단체	한국독립군
66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북로군정서 / 대한독립군
66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한국광복군
66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조선의용대
66	대한 국민회군 등과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대한독립군
66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한국독립군
66	회사법 / 토지 조사 사업	1910년대 무단통치
66	[연도] 신문지법 제정	1907년
66	[연도] 미쓰야 협정 체결	1925년
66	[연도] 경성 제국 대학 설립	1924년
66	[연도] 조선 사상법 예방 구금령 시행	1941년
66	박상진이 조직한 민족운동단체	대한광복회
66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신한청년당
66	일제가 꾸며낸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신민회
66	만민 공동회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였다.	독립협회
66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였다.	대한광복회
66	조선 독립에 관한 선언서 / 천도교, 기독교 신도들의 서명 / 한국 독립 만세	3.1 운동
66	[연도] 간도 참변으로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1920년
66	[연도] 상하이에서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1923년

회차	일제강점기의 한국사 (무장독립투쟁)	
66	[연도] 언론사의 주도로 브나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1930년대
66	[연도]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1927년
66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서가 발표되었다.	3.1 운동 배경
66	독립 운동가이자 문학가 / '청포도' 시	이육사
66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하였다.	심훈
66	광야, 절정 등의 저항시를 발표하였다.	이육사
66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하였다.	조명하
66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만들었다.	조소앙
66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인보
66	김지섭의 동경 궁성 폭탄 투척 / 단장 김원봉	의열단
66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하였다	한인애국단
66	비밀 행정 조직인 연통제를 운영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66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
66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워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다.	신민회
66	조선 통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였다.	독립의군부
66	광주 학생의 석방 요구 / 치안 유지법 철폐	광주학생운동 (1929)
66	순종의 장례일을 맞아 가두시위를 벌였다.	6.10 만세 운동 (1926)
66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3.1 운동
66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물산장려운동
66	신간회의 지원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광주학생운동 (1929)
66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원산총파업
66	일본식 씨(氏)명을 사용하도록 강요	창씨개명 (1930년대~)
66	통감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을사늑약 (1905)
66	[연도]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였습니다.	1910년대
66	[연도]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910년대
66	[연도] 여자 정신 근로령을 공포하였습니다.	1944년
66	[연도]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1908년
65	[연도]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1927년
65	[연도] 치안 유지법이 적용되었다.	1925년
65	헌병 경찰제 / 태형	1910년대 무단 통치
65	[연도]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908년
65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한 법령	2차 조선 교육령 (1922)
65	[연도] 서당 규칙이 제정되었다.	1918년
65	[연도] 2.8 독립선언이 발표되었다.	1919년
65	[연도] 조선어 연구회가 결성되었다.	1921년
65	[연도] 조선 여자 교육회가 조직되었다.	1920년
65	[연도]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1923년
65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
65	무장 투쟁을 위해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대종교
65	민족 교육을 위해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이상설
65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를 세웠다.	신민회
65	외교 활동을 위해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
65	농촌 계몽을 위해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동아일보
65	[연도] 원산 총파업	1929년
65	[연도] 미쓰야 협정	1925년

회차	일제강점기의 한국사 (무장독립투쟁)	
65	[연도] 조선 형평사	1923년
65	[연도] 국가 총동원법 시행	1938년
65	[연도] 임시 토지 조사국 설립	1910년대 무단 통치
65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	조선의용대
65	자유시 참변으로 시련을 겪었다.	대한독립군단
65	대원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조선의용대
65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독립군
65	독립군 양성 기관인 한인 소년병 학교를 설립하였다.	박용만 (미국)
65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북로군정서 (김좌진)
65	[인물]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다.	최현배, 이극로, 이희승, 정인승
65	[인물]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다.	김규식
65	[인물]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다.	임병찬
65	[인물]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저술하다	박은식
65	일제에 의해 조작된 105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	신민회
64	대한 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박상진
64	[연도] 회사령	1910년
64	[연도] 원산 총파업	1929년
64	[연도] 국가 총동원법	1938년
64	[연도] 조선 노동 공제회	1920년
64	[연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공포	1941년
64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	신간회
64	부민관 폭파 사건을 주도하였다.	대한애국청년단
64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하였다.	의열단
64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하였다.	천도교 (방정환)
64	민족 협동 전선으로 결성되었다.	신간회
64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주도 / '조선 사람 조선 것' 구호	물산장려운동
64	한성은행, 대한 천일 은행 설립에 영향을 끼쳤다.	광무개혁
64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원산총파업 (1929)
64	조선 관세령 폐지를 계기로 확산되었다.	물산장려운동
64	전시 동원령 / 징용	민족말살 통치
64	[연도] 형평사 창립 대회 개최	1923년
64	헌병 경찰에 끌려가 태형을 당하는 농민	무단 통치
64	[단체]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조선어 학회
64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단체 / 총사령관 지청천	한국광복군
64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한국독립군
64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의 무장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조선의용대
64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조선혁명군
64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대한독립군단
64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한국광복군
64	[인물]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김규식
63	[연도] 대종교 계열의 중광단이 결성되었다.	1911년
63	[연도] 한용운이 조선불교유신론을 저술하였다.	1913년
63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	6.10 만세 운동
63	제암리 학살 등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3.1 운동

회차	일제강점기의 한국사 (무장독립투쟁)	
63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63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63	3.1 운동에 영향을 받아 설립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63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이재명
63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임병찬
63	국권 침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박은식
63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으로 서울 진공 작전을 지휘하였다.	이인영
63	논설 단연보국채를 써서 국채 보상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서상돈
63	최익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킴 /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다가 체포되어 순국	임병찬
63	총사령관 양세봉 / 중국 의용군과 함께 남만주에서 항일 투쟁	조선혁명군
63	간도 참변 이후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대한독립군단
63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승리하였다.	조선혁명군
63	조선 독립 동맹 산하의 군사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조선의용군
63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한국광복군
63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한에서 창설되었다.	조선의용대
63	진주에서 시작되어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랑' 구호 아래 전개되었다.	형평운동
63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국채보상운동
63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3.1 운동
63	대한 자강회가 결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을사늑약 (1905)
63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하였다.	형평운동
63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	찬양회 (1898)
63	[시대] 조선 총독부의 토지 조사 사업	1910년대 무단통치
63	[시대]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30~40년대 민족말살
63	[연도] 경성 제국 대학	1924년
63	[시대]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 경찰	1910년대 무단통치
63	[연도] 원산 총파업	1929년
63	[연도] 나운규가 감독한 아리랑 영화	1926년
63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신한청년당
63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사정안을 제정하였다.	조선어학회
63	국문 연구소를 두어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주시경
63	<조선말 큰사전> 편찬 작업 / 치안 유지법으로 탄압	조선어학회
63	대한민국 인시 정부 주석 역임 / 백범	김구
63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김원봉
63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김구
63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활동을 주도하였다.	여운형
63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 축성 중앙 협의회를 이끌었다.	이승만
63	신한 청년당 결성 / 좌우 합작 위원회 조직	여운형
63	[지역] 지주 문재철의 횡포에 맞서 소작 쟁의가 일어났다.	전남 신안
62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하고 독립 공채 발행	대한민국 임시정부
62	외교 활동을 펼치기 위한 구미 위원회 설치	대한민국 임시정부
62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 전개	동아일보
62	[지역] 박용만이 독립군 양성 기관인 한인 소년병 학교를 창설 / 대조선 국민군단 조직	미국 하와이
62	[연도] 신간회 해소	1931년
62	[연도] 임병찬이 독립 의군부를 조직	1912년
62	[연도] 독립군이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1920년

회차	일제강점기의 한국사 (무장독립투쟁)	
62	[연도] 도쿄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1919년
62	[연도]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에 조선 의용대가 창설되었다.	1938년
62	[연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1929년
62	[연도] 정우회 선언	1926년
62	조선 혁명 간부 학교 설립	김원봉
62	대한 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 처단	박상진
62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에 대승	지청천
62	종광단을 중심으로 북로 군정서를 조직	서일
62	황푸 군관 학교에 입학하여 군사 훈련 받음	의열단
62	[연도] 치안 유지법 공포	1925년
62	[연도] 토지 조사령 제정	1912년
62	[연도] 헌병 경찰 제도 실시	1910년
62	[연도] 식량 배급 및 미국 공출제 시행	1940년대
62	[연도]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하였다.	1차 조선교육령 (1911~22)
62	충청에서 대일 선전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 임시정부
62	한인 자치 기관인 경학사를 조직	신민회
62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음	의열단
62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	조선어학회
62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 강령을 선포	대한민국 임시정부
61	[연도] 일제의 토지조사령	1912년
61	경성 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문화 통치 1920년대
61	근우회의 창립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문화 통치 1920년대
61	조선인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 경찰	무단 통치 1910년대
61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 처단 / 박상진	대한광복회
61	공화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	대한광복회
61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	신한청년당
61	미군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 작전 계획	한국광복군
61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민권 신장을 추구	독립협회
61	제암리 학살 사건	3.1운동
61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	광주학생항일운동
61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 전개	6.10만세운동
61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	3.1운동
61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광주학생항일운동
61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6.10만세운동
61	[연도] 메가타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1905~1910년
61	[연도] 만주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쓰야 협정 체결	1925년
61	[연도] 지주 문재철의 횡포에 맞서 압태도 소작 쟁의가 전개	1923년
61	[연도] 회사령 공포	1910년
61	구미 위원부를 조직 / 이룡양행에 교통국을 설치	대한민국 임시 정부
61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대한독립군단
61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한국독립군
61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펼쳤다.	동북인민혁명군
61	김원봉, 윤세주 등이 중국 관내에서 창설하였다.	조선의용대
61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북로군정서

회차	일제강점기의 한국사 (무장독립투쟁)	
61	[지역] 명동학교 설립 / 서전서숙	북간도
61	[지역] 권업회가 설립되어 권업신문을 발간	연해주
61	[단체]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한인애국단
61	[지역] 박용만의 주도로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되었다.	하와이
61	[지역] 북로 군정서가 조직되어 독립 전쟁을 전개	북간도
61	[지역]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 선언서 발표	일본 도쿄
60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	정인보 / 안재홍
60	유교의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제창	박은식
60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가 조선사 편찬에 참여	이병도
60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 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	백남운
60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한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	신채호
60	조선상고사 (아와 비아의 투쟁) 집필	신채호
60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 경제적 자립 추진	물산장려운동
60	자작회, 토산 애용 부인회 등이 활동	물산장려운동
60	한성 은행, 대한 천일 은행 등이 설립되는 계기	대한제국 광무개혁
60	애국반을 조직하였다.	1930 후반 ~ 40년대
60	회사령을 시행하였다.	1910년
60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였다.	1925년
60	미국 공출제를 실시하였다.	1930 후반 ~ 40년대
60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하였다.	1930 후반 ~ 40년대
60	일본, 프랑스 등지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음	원산 총파업 (1929)
60	중국 우한에서 창설된 한인 무장 부대 / 호가장 전투	조선의용대
60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대한독립군
60	총사령 양세봉의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	조선혁명군
60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한국광복군
60	조선 독립 동맹 산하의 군사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조선의용대
60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대한독립군
60	김구가 일제의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한인애국단
60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되었다.	조선의용대
60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	의열단
60	이봉창, 윤봉길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한인애국단
60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하였다.	한국독립군
60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되었다.	신민회
60	한국 광복군의 기관지 광복을 발행	지복영
60	임금 삭감에 저항하여 을밀대 지붕에서 농성	강주룡
59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	이재명
59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사살	안중근
59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	조명하
59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	나석주
59	5적 처단을 위해 자신회를 조직	나철
59	대종교 창시자	나철
59	고종의 밀명 / 임병찬 / 복벽주의	독립의군부
59	서간도에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	신민회
59	독립 공채 발행	대한민국 임시정부
59	조선 총독에게 제출하기 위해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	독립의군부

회차	일제강점기의 한국사 (무장독립투쟁)	
59	영류가 전투 승리	조선혁명군 (1932)
59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 격퇴	한국독립군 (1933)
59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	조선의용대 (1941)
59	공립 협회, 대한인국민회, 홍사단 조직 / 동우회 사건	안창호
59	일본의 침략 과정을 담은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박은식
59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여 여유당전서를 간행하였다.	정인보 / 안재홍
59	백산 상회를 설립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안희제
59	친일 인사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하였다.	장인화 / 전명운
59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하였다.	안창호
59	[연도]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1910년
59	[연도]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1925년
59	[연도]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였다.	1924년
59	[연도]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무단통치 (1910년대)
59	[연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공포하였다.	1941년
59	박재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린 지역	부산
59	충청 /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	한국광복군
59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대승을 거두었다.	북로군정서/대한독립군
59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한국광복군
59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독립군
59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홍경성에서 승리하였다.	조선혁명군
59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펼쳤다.	동북인민혁명군
59	강주룡이 울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역	평양
58	[지역] 대종교 계열의 중광단이 결성되었다.	북간도
58	[지역] 권업회가 조직되어 권업신문을 창간하였다.	연해주
58	[지역] 사회주의 계열의 한인 사회당이 조직되었다.	연해주
58	[지역]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 무관 학교가 설립되었다.	서간도
58	[지역] 대조선 국민군단이 조직되어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다.	하와이 (박용만)
58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시행되었다.	민족 말살 (1941년)
58	[연도] 브나로드 운동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931년
58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이 설립되었다.	문화 통치 (1927년)
58	내선일체를 강조한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민족 말살 (1930년대)
58	김원봉이 중국 지린성에서 조직한 무장 단체	의열단
58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보안회
58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 전쟁을 준비하였다.	독립의군부
58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58	단원인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한인애국단
58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
58	국민 징용령이 공포되었다.	민족 말살 (1939년)
58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무단 통치 (1910년대)
58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한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였다.	문화 통치 (1925년)
58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무단 통치 (1910년대)
58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였다.	무단 통치 (1910년대)
58	애국반을 조직하여 한국인의 생활을 통제하였다.	민족 말살 (1939년)
58	지청천이 총사령관으로 활동한 조직	한국광복군
58	영류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하였다.	조선혁명군

회차	일제강점기의 한국사 (무장독립투쟁)	
58	중국 팔로군에 편제되어 항일 전선에 참여하였다.	조선의용대
58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한국광복군
58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이다.	조선의용대
58	간도 참변 이후 밀산에서 집결하여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대한독립군단
57	산미 증식 계획의 실상을 조사한다.	1920년대
57	토지 조사 사업의 추진 과정을 파악한다.	1910년대
57	조선 태형령	1910년대
57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	조선형평사 (1923)
57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	동아일보 (1931)
57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지정	1차 조선 교육령 (1911)
57	경성 제국 대학 설립 연도	1924년
57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창립 연도	1923년 (이상재)
57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	조선의용대
57	홍범도가 총사령관으로 활약하였다.	대한독립군
57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조선혁명군 (양세봉)
57	대원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조선의용대
57	도쿄에서 2.8 독립 선언을 계획하였다.	일본 유학생
57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였다.	신한혁명당 (신규식, 박은식)
57	별 헤는 밤, 참회록 등의 시를 남겼다.	운동주
57	조선상고사를 저술하였다.	신채호
57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하였다.	심훈
57	저항시 광야, 절정 등을 발표하였다.	이육사
57	영화 아리랑 제작과 감독을 맡았다.	나운규
57	국가 총동원법	1938년
57	미국 공출제가 시행되었다.	1930년대
57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1930년대
57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실시되었다.	1910년
56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고,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였다.	안중근
56	친일 인사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장인환 / 전명운
56	5적 처단을 위해 자신회를 조직하였다.	나철 / 오기호
56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이재명
56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나석주
56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56	민족 대표 33인 명의의 독립 선언서가 발표되었다.	3 1 운동
56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3 1 운동
56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조선어 학회
56	유교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제창하였다.	박은식
56	월간지 유심을 발간하여 불교 개혁 운동에 힘썼다.	한용운
56	진단 학회를 설립하여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	손진태 / 이윤재
56	독사신론을 저술하여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채호
56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 경찰	1910년대
56	원산 총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	1929년
56	회사령을 공포하는 총독부 관리	1910년대
56	신사 참배에 강제 동원되는 학생	1930년대 이후

회차	일제강점기의 한국사 (무장독립투쟁)	
56	암태도 소작 쟁의에 참여하는 농민	1920년대
56	상하이에서 대동 단결 선언을 발표하였다.	신규식 (1917년)
56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보안회
56	여성 교육을 위해 배화 학당을 설립하였다.	캠벨 (미국선교사)
56	조선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근우회
56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하여 소년 운동을 주도한 종교	천도교
56	대한광복군 정부 지역	연해주
56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를 세운 지역	서간도 (경학사)
56	권업회를 조직하여 권업신문을 발행한 지역	연해주
56	승무 학교를 설립하여 무장 투쟁을 준비한 지역	멕시코
56	한인 비행 학교를 세워 독립군 비행사를 육성한 지역	미국
56	대일 항전을 준비하기 위해 조선 독립 동맹을 결성한 지역	중국 화북
56	이륜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56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앙	대한민국 임시정부
56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하였다.	천도교
56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
56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조선어 학회
56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 강령을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소앙)
55	국혼을 강조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한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박은식 (한국통사)
55	진단 학회를 창립하고 진단 학보를 발행하였다.	이병도
55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인보
55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이상설, 이준, 이위종
55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조만식
55	실천적인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구신론을 저술하였다.	박은식 (한국통사)
55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다.	1910년 (무단 통치)
55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였다.	1920년대 (문화통치)
55	미국 공출제가 실시되었다.	1940년대 (말살통치)
55	조선 태형령이 시행되었다.	1912년 (무단통치)
55	국민 징용령이 제정되었다.	1939년 (말살통치)
55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1924년 (문화통치)
55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1937년 (말살통치)
55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김상옥 (의열단)
55	조선 혁명 선언을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	의열단
55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55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 단체이다.	독립의군부
55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 의거를 계획하였다.	한인애국단
55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워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다.	경학사 (서간도)
55	1929년 한일 학생 간 충돌을 계기로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된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55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형평 운동
55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	6 10 만세 운동
55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3 1 만세 운동
55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우회 선언 (6 10 만세 운동)
55	신간회 중앙 본부가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55	기관지 '한글'을 간행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조선어학회

회차	일제강점기의 한국사 (무장독립투쟁)	
55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에 설립되었다.	국문연구소
55	우리말 음운 연구서인 언문지를 저술하였다.	유희 (순조)
55	오적 암살단 조직 / 대종교	나철
55	사찰령 폐지 운동을 추진하였다.	불교 (한용운)
55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천도교
55	종광단을 결성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대종교
55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개신교
55	박종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다.	원불교
55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1930년대 (말살통치)
55	중국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1925년 (문화통치)
55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고자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1923년 (문화통치)
55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1926년 (문화통치)
55	일제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1941년 (말살통치)
54	회사령 폐지에 영향을 받았다.	물산 장려 운동
54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준비하였다.	6 10 만세 운동
54	중국, 프랑스 등의 노동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원산 총파업
54	이상재와 이승훈 등이 중심으로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를 만들었다.	민립대학 설립 운동
54	중국의 5 4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3 1 운동
54	승무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한 지역	멕시코
54	권업회를 창립하여 항일 신문을 발행한 지역	연해주
54	이상설 등이 민족 교육을 위해 설립한 사립 학교	서전서숙
54	임병찬이 주도하여 조직한 단체	독립 의군부 (서울)
54	박상진이 주도하여 조직한 단체	대한 광복회 (대구)
54	이범윤, 유인석, 이상설, 신채호 등이 연해주에 조직한 단체로 '권업신문'을 발행하고 독립군 양성을 위해 대전학교라는 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권업회
54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통사' 저술하였다.	박은식
54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거 지원하였다.	김창숙
54	상하이에서 개최된 회의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처리를 두고 창조파와 개화파가 나뉘어 격론을 벌였다.	국민대표회의 (1923)
54	초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 제도의 기초를 다졌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진상 조사 위원 /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 남조선 과도 정부 사법부장	김병로
54	양세봉을 총사령으로 하고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조선혁명군
54	홍경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조선혁명군
54	자유시 참변 이후 세력이 약화되었다.	대한독립군단
54	중국 팔로군에 편제되어 항일 전선에 참여하였다.	조선의용군
54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였다.	한국광복군
54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당의 산하 부대였다.	한국독립군
53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홍범도
53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하였다.	양기탁
53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안중근
53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상설
53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임병찬
53	윤희 황제(순종) 인산일에 학생 격문 배포, 만세 시위	6 10 만세 운동
53	한일 학생 간 충돌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광주 학생 운동
53	민족 협동 전선인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미쳤다.	6 10 만세 운동

회차	일제강점기의 한국사 (무장독립투쟁)	
53	연해주에서 대한 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상설
53	대한 광복회의 총사령으로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박상진
53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	김원봉
53	만주 사변 이후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지청천
53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 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신채호